



설치미술가 양주혜씨의 '길 끝의 길'展
서울 동숭동 아코미술관, 2월 11일까지

반야심경 글자위에 색점을 찍고 다시 등글게 배치해 만다라 모양으로 구성된 '흔적 지우기'. 전시실 천정 높이가 낮아 이번 전시에 선보이지 못해 양주혜 작가가 안타까워하고 있다.

인터뷰

■ 양주혜씨



"불교는 내게 있어 절박합니다. 반야심경과 법계도를 작업한 까닭도 내 정체성 중 중요하게 각인된 동양인으로서의 정신과 사상에 대한 애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자도 아닌데 반야심경·법계도에 몰두하는 이유를 양 작가는 이렇게 대답한다.

양 작가가 화엄일승법계도를 만난 것은 10년 전 부석사를 갔을 때이다. 화엄일승법계도를 응용한 관광상품을 보고 단번에 매혹됐다. 이후 해인사에서 만난 한 스님으로부터 의상대사 법계도의 의미를 들었다.

"법계도를 공간 속에 재현하고 싶었다"는 양 작가는 "법계도를 작업할 때는 경관을 머리에 이고 법계도를 돌린 불자의 마음과 같아진다"고 고백한다.

양 작가가 가장 먼저 불교와 만난 작업은 <반야심경>에 색점 찍기였다. 1998년 아트선재미술관에 전시됐던 '흔적 지우기'는 반야심경 글자 위에 색점을 찍어 만다라처럼 펼쳐놓은 작품이다. 양 작가는 "만다라는 형태로써 정신을 전달하는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한다.

이후 지금까지 법계도에 심취한 작업들을 해왔다. 99년 '여성미술제-팔취들의 행진'에서 법계도 책꽂이를 만들어 선보였다. 2000년 개인전 '공·0·不'에서는 타일 위에 시트를 붙여 법계도를 공간으로 불러냈다. 2001년 서울 지하철 5호선 봉곡역차에

불교 소재 선택은 동양인 정체성 확인
자연과 합일된 '법계도 공원' 만들 것

형광시트로 작업한 법계도는 그 독특함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같은 해 접자 보도블럭을 활용한 법계도 '다이나의 노래'를 선보이며 시각장애인들에게 법계도를 읽을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양주혜 작가의 행보는 바쁘다. 상반기에는 한국과 프랑스 수교 120주년을 맞아 프랑스문화원 측에 건물 외벽 바코드 작업을 제안했다. 가을에는 개인전도 준비 중이다.

양주혜 작가는 "법계도를 따라 물이 흐르고 우리 조형물로 투명한 느낌을 살린 공원화 법계도 형태로 나무를 심어 숲을 거닐며 생각을 할 수 있는 법계도 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양주혜 작가는 홍익대학교 조소과에서 수학과 프랑스 마르세이유-뤼미에 미술대학을 졸업했다. 파리 제8대학교 조형예술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0년 서울 공간화랑에서 열었던 제1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8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평면과 설치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양주혜씨는 프랑스문화원, 문화관광부 청사, 공원 등에서 특유의 조형세계를 실험해 왔다. 색점 작가라 불려질 만큼 20여년이 넘게 색점을 그려왔다.

1990년대 중·후반을 거쳐 2000년대로 오면서 기하학적 형태로 배치·기록된 <반야심경>과 화엄일승법계도의 형태에 주목하고 작업에 활용했다.

정신을 담은 '형태'의 美

서울 동숭동 아코미술관 외벽을 장식한 투명 판 위에는 알록달록 선들이 그려져 있다. 양주혜 작가가 입혀놓은 바코드들이다. '빛이 만들어진 형태의 재현'이라는 작가의 설명과 함께 모든 존재에 부여된 '가치성'을 생각하며 미술관 안으로 들어섰다. 마침 휴관일(매주 월요일)이어서 작품들이 다양한 형태로 설치된 전시장을 작가와 함께 일일이 돌아다녔다.

작품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양 작가의 말투에서 작품에 대한 진한 애정이 묻어났다. 우리나라 설치미술가 1세대 양주혜 작가의 작품들은 지난 12월 28일부터 '양주혜·길 끝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2월 11일까지 아코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다. (02)760-4598

들려온다. 사람의 목소리와 플루트의 음율로 채워진 그 음악은 바코드로 표현된 그림의 색에 음을 배치하고 점의 수만큼 박자로 인식해 음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빛과 소리, 공간 그리고 물질이 합쳐 하나의 작품이 된 제1전시실에서 양주혜 작가는 평면 속 바코드를 입체적 공간에 세웠다. "누워있는 것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다"는 작가의 말을 화두로 시간과 공간으로 형상화된 바코드들을 감상해보자.

커다란 천들이 늘어져 있고 바닥에는 불이 들어오는 숫자들이 나열돼 있다. 전시실 4편을 둘러싼 하얀 벽에는 작품이 만들어진 그림자들이 흔적처럼 새겨졌다. 이 그림자들 역시 바코드의 모양 그대로다. '이 물질 없는 그림



색색의 천과 숫자가 만들어 내는 빛, 소리가 어우러진 바코드 작업.



법계도 일부를 본뜬 서가와 108권의 책.



2001년 서울지하철 5호선 봉곡역차에 구현한 법계도.

이곳에는 '초기 색점찍기' '흔적 지우기-반야심경' '흔적찾기II-치아보행물' 색색깔의 천을 법계도 모양으로 누벼 만든 작품들이 벽면을 메우고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nia.com

소갤러리 전체 법계도 본떠 아카이브로 꾸며
빛 소리 색, 시·공간으로 형상화해 사원 연상

아코미술관에 들어서면 왼편에 위치한 소갤러리. 소갤러리 전체를 하나의 아카이브(특정 장르에 속하는 정보를 모아 둔 정보 창고)로 꾸몄다. 동시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는 취지에서 미술 건축 문화 관련 출판물과 카탈로그 108권을 서가에 채웠다. 투명 아크릴과 바코드 문양으로 구성된 서가는 법계도의 일부를 본떠서 작업했다.

소갤러리에 들어서면 특이한 음악이

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 물질로 조형물을 만든 것"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바닥에 놓인 13개의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색깔은 6초 단위로 변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색상마다 악기를 정했고 색깔이 바뀌는 속도를 박자로 삼아 서로 다른 13개의 악기를 연주했다. 양 작가는 제1전시실을 거대한 사원이라고 표현한다.

미발표 신작을 전시한 제2전시실에서는 기둥 하나에도 주목하자. 기둥마다 바코드 작업이 돼 있다. 초기 색점찍기에서부터 최근 바코드 작업에 이르기까지 전 작업의 경향을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양 작가는 제2전시실을 "색점과 빛, 텍스트와 영상이 어우러진 사원"이라고 설명한다.



2000년 개인전 '공·0·不'에서 선보인 화엄일승법계도 불교의 윤회사상을 법계도의 모양을 빌어 미로처럼 표현했다.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상표등록 : 614981호
의정출원 : 제35872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化

가득한 만행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기압식 깔창

가격 : 80,000원
규격 : 215-290mm
색상 : 회색, 흑

방한용 털신

털 깔창

가격 : 60,000원
규격 : 215-290mm
색상 : 회색, 흑

기능성 지압 깔창

(등) 발냄새 무용방지

규격 :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가격 : 20,000원

최고의 선물

좋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과 따라 세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를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라' 깔창은 특수 항공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을 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용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보시용으로 10쪽이상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이 엄선한 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시리즈4탄

인도불교성지순례(룸비니, 니르바나, 마하보디사원)

7박 8일 2월21일-28일 비자신청관계로 2월 10일 마감합니다
신청금 20만원 동참금 205만원

- 제1일 델리도착
- 제2일 델리, 락나푸, 스라바스티 고속열차이동 스라바스티 | 기원정사(사혜트)
- 제3일 룸비니 | 마야데비 사원 | 구룡못 | 아쇼카 석주 순례.
- 제4일 니르바나 사원 | 라마바르 흉무덤 | 다비터 순례후 바이살리 | 파르나
- 제5일 나란다 불교대학터 | 죽림정사 | 영축산 | 범비사라 감옥터 | 보드가야
- 제6일 마하보디사원 | 니련선하(Niranjana River) | 철선차 | 금강보와
- 제7일 갠지스강의 인출 감상 및 선상법회 및 향하사순례 | 다메코 수도파 | 아쇼카석주 및 사르나트 박물관 견학 비라나시에서 국내선(비행편)이동
- 제8일 델리 출발 인천 도착

일본큐슈크루즈여행(구마모토, 아소산, 벳부, 지옥은천)

4박 5일 2월16일-20일 동참금 55만원
선박료, 호텔박사(세탁사)관광임금료, 부두세, 향찬세, 여행보험(1억원)기금, 가이드및기타비용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 제1일 KTX 15 서울 | 부산 시모노세기 항발
- 제2일 씨사이드모모치 해변 관광 | 다자이후천만공 : (수험생어머니들의 합격기원으로 유명한 사원) | 구마모토 이동 | 구마모토성 관광
- 제3일 사루마와시 원승이쇼 | 아소화화산 | 쿠사렌리 | 유노하나, 해지옥, 지옥은천순례 | 벳부만 전망대 관광
- 제4일 벳부 | 히로니랜드 관광 | 우사신궁 관광 | 시모노세기항
- 제5일 KTX 84 | 서울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Tel (02) 2004-8295 Fax (02) 2004-8296 으로 연락 바랍니다